



## 세금개혁안 시범시행 지역 확대

이소양 연구원

■ 6월 30일 중국 북경재정국은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와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.

- 영업세의 경우 최종재에 대해서 과세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해당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감소함.
-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대부분 기업의 세금부담이 감소되고 생산 세분화 및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의 대외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됨.
- 2012년 초부터 상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는데, 4개월 간 20억 위안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나 향후 전국적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확대할 계획임.

■ 전문가들은 세금개혁안 시범시행에 따라 조세 수입, 기업 관리, 세무 기관의 징수 및 감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.

-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일부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투자를 줄이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북경시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함.<sup>1)</sup>
- 부가가치세는 징수 절차 및 회계기준이 영업세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송장 위조나 장부조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고, 세무 기관의 징수 및 감독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.
- 한편, 중국 세무시스템은 지방세무 시스템과 중앙세무 시스템으로 분리되어 있는데, 지방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영업세가 없어지면서 지방세무 시스템이 중앙세무 시스템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.

(WSJ, 신량망, 7/2 등)

1) 대부분 산업에 적용되는 영업세 세율은 3%~5% 수준이나 부가가치세 세율은 6%~17% 수준임.